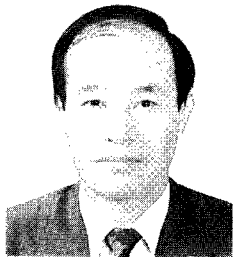


## 가금위생 해외뉴스

### 오경록 ◀코너



오 경 록  
남덕 씨니테크

#### □ 생산자별 도계검사 결과

도계검사에서 개체평가와는 별도로 생산자별로 비교 평가하는 지표를 구하기 위하여 야마구찌현 가축 보건 위생소에서는 현내 도계장에서 실시한 도계검사 결과를 기본으로 종합 분석하였다.

종합결과에 의하면 도계전 폐기율은 0.01%~1.61% 이었고 '93년 7월 이후는 0.1% 미만이었다.

전체 폐기율은 0.9~2.9%이었고 원인별로는 약추와 발육불량이 44.5%, 탕적과잉이 36%, 방혈불량 18.4%가 주원인이었고 기타 외상, 염증, 복수증, 출혈, 종양이었다.

전체 폐기의 주원인이 약추와 발육불량인 것과 약추, 발육불량과 탕적과잉, 방혈불량의 각 발생을 사이에 정비례하는 것으로 보아 결국 약추와 발육불량이 전체 폐기율을 좌우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일부분 폐기율은 1.9~6.1%이었다. 원인별로는 변성이 75.6%, 염증이 11.6%, 출혈 8.7%, 외상 4%이었다.

변성은 간지방변성이 주요 원인이었고 염증은 간염과 다리 인대의 염증이였다. 변성의 발생율은 1.2~5.4%로 생산자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고 일부 폐기율과는 정비례하였다. 전체 생산자에서 일부분 폐기의 약 70%를 변성이 차지하고 있다. (NK 95. 11)

#### □ 계란의 살모넬라균 오염상황

오가야마현 가축보건 위생소에서는 인근 현에서 발생한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의 원인식품이 계란이었다라는 보고가 있기에 계란을 취급하는 GP 센타와 액란가공시설의 처리상황을 조사하고 또한 실제 어느 단계에서 살모넬라에 오염되는가를 알기 위하여 산란계 농장, GP 센타, 액란 가공시설의 각 단계에서 계란의 세균수 조사와 더불어 산란계 농장에서의 계분, 도계장에서의 도계육도 검사하고 한편 항생물질, 항균성 물질의 잔류검사도 동시에 실시하였다.

검사시설은 GP 센타 19개소, 액란가공시설 11개소, 산란계 농장 5개소, 도계장 5개소로 살모넬라균, 일반 세균수, 대장균군수,

항생물질, 항균성 물질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농장에서 출하한 계란은 상온에서 GP센타, 액란 가공시설을 경유하여 소비자에 도달하는 것이 일반적 유통이었고 상품가치가 낮은 파란, 오란, 연란은 일반 유통에 의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살모넬라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대장균군은 농장에서 채취한 파란, 미살균한 액란에서 검출되었으나 이는 난각에서 오염된 것으로 생각한다. 계란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는 길은 계란 내부의 살모넬라균의 유무보다 어떻게 신선하고 표면이 위생적인 계란을 신속하게 소비자의 손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액란은 난각으로부터 오염이 우려되므로 특히 미살균한 액란은 가열하여 사용하는 것을 주시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NK 95. 11)

#### □ 시리아에 마렉병과 감보로병 유행

시리아의 산란계 농장은 마렉병과 감보로병의 유행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여러회사의 백신이 본 질병의 예방을 위해 권장되고 있으며 감보로병은 생독백신 그리고 계사를 청소하고 호르말린 훈증소독을 하도록 권장한다.

마렉병은 현재 시리아 양계인들에게는 가장 골치 아픈 질병이 되고 있고 지난 10여년간 산란계와 종계의 대부분이 백신접종한 계군에서 마렉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급성형 마렉병이 대부분이고 일부는 내장형인 만성형이다.

증상과 병변에 따라 백혈병으로 인정되기도 하지만 실험실 검사에서 마렉병으로 진단되고

있다. 1985년에는 마렉병의 심한 발생으로 백색 산란계의 산란율이 60%까지 떨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산란계 농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농장은 급성형 마렉병으로 심하게 오염되어 있으며 시험에서는 기존의 마렉병 HVT 백신이 효과는 양호하지만 야외 마렉병의 특성이 변화되었고 이러한 마렉병 바이러스는 면역억제 능력을 보이고 늦게 증양을 일으키기도 하므로 새로운 백신 접종계획과 육추사의 격리사육이 권장되고 있다. (WP 95. 10)

#### □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감보로병은 중요 질병

사우디 아라비아의 양계산업은 아직 초기단계로 많은 농장이 관심을 갖고 성장하고 있으며 1994년의 양계생산 규모는 육계 3억수, 계란 30억개 정도이며 기후조건 때문에 대부분은 무창계사이다.

대부분의 양계인은 질병의 유행, 높은 기온, 높은 임금, 비싼 사료가격으로 더욱 투자하기를 주저하고 있다.

여름의 45℃의 고온과 60~80%의 높은 습도는 현대식 계사에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 높은 온도는 기계설비로 떨어뜨릴 수 있지만 습도는 어쩔 수 없어 여러가지 문제를 유발한다.

산란계 농장과 육계농장에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방역위생관리를 소홀한 결과로 감보로병은 이제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중요한 질병의 하나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WP 95. 10)